

건축학전공 교수님께,

2016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경과를 교수님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학과의 배려로 지난 1월 초부터 5층 설계실 방 하나를 작업실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은기, 안기현, 김승범, 정이삭, 정다운 큐레이터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6개 건축물을 설계한 사무실/건축가 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큐레이터들이 전시주제에 따라 재해석한 전시입니다. 네 분의 미술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 카탈로그에는 아홉 분의 국내외 건축가, 도시연구자, 학자, 언론인이 글을 기고합니다.

이번 전시는 준비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 동안 학과 교수님들의 의견도 듣고 비평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큐레이터와 회의하는 것도 빠듯하여 실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3월 10일, 목요일) 늦은 저녁 처음으로 5명의 큐레이터, 36개 사무실의 건축가, 미술가, 스탠프가 상견례 겸 Pre-Shipping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1차 전시물(모형, 테이블, 조명기구, 대형 액자)을 배로 부치기 위해 운송회사에서 짐을 꾸리러 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인증집필회의 중 잠시 짬을 내어서 작업실을 방문해주시면 중간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교수님들께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전시장 중앙에 설치할 모형을 먼저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혹시 오전 회의에 오시지 못하는 교수님들께는 운송으로 다소 어수선하겠지만 특강 전후에 들려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말 개전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교수님들의 배려로 지금까지 꾸려온 것 같습니다.

응원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홍드림